



월드컵 소식

“지성이 상태 수시로 체크하고 있어”

이영표 인터뷰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초통이’ 이영표가 ‘파워엔진’ 박지성에게 띄워 미안했던 모양이다. 박지성은 지난달 31일(이하 한국시간)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의 아드보카트 훈련장에서 미러이 파크에서 미니게임을 하던 도중 왼쪽 발목을 접질렀다. 박지성은 상대편인 이영표가 뒤쪽으로 바짝 붙자 불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인발로 불을 컨트롤하려다 넘어졌고 인발목 염좌라는 진단을 받았다. 미니게임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만 결과적으로 부상을 야기한 이영표로서는 적잖이 가슴이 아팠던 것 같

다. 복유럽 강호 노르웨이와 평가전을 치르기 위해 1일 노르웨이 오슬로에 입성한 아드보카트가 오슬로 올레볼 스타디움에서 훈련을 마친 뒤 인터뷰를 가진 이영표는 ‘박지성과 부딪혔는데’라고 묻자 입가에 미소를 띠며 “그렇지 않아도(박지성의 상태를) 수시로 체크하고 있다”고 웃어 넘겼다. 부상 선수를 검진하는 게 물론 자신의 일은 아니지만 네덜란드에서 3년 간 한술밥을 먹어 누구보다 절친한 후배 박지성의 부상이 맘에 걸리는 듯한 표정을 보였다. 이영표는 “주치의 선생님 말로는 2~3일 정도 조심하면 다시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한국-스위스전 선제골 승부다”

노르웨이 방송기자

“한국과 스위스의 대결은 선제골 승부다. 스위스가 선제골을 넣으면 확 걸어 잡기 때문에 힘들어진다”
1일(이하 한국시간) 노르웨이 오슬로의 올레볼 스타디움. 아드보카트가 노르웨이와 평가전(2일 오전 2시)을 치르기 위해 찾은 이곳에서 만난 노르웨이 ‘TV2’ 방송의 크누트 올라스 올스네스 기자는 노르웨이와 스위스와 매우 비슷한 팀 컬러를 갖고 있다면서 한국이 독일월드컵 본선에서 스위스를 이길 ‘비책’을 훈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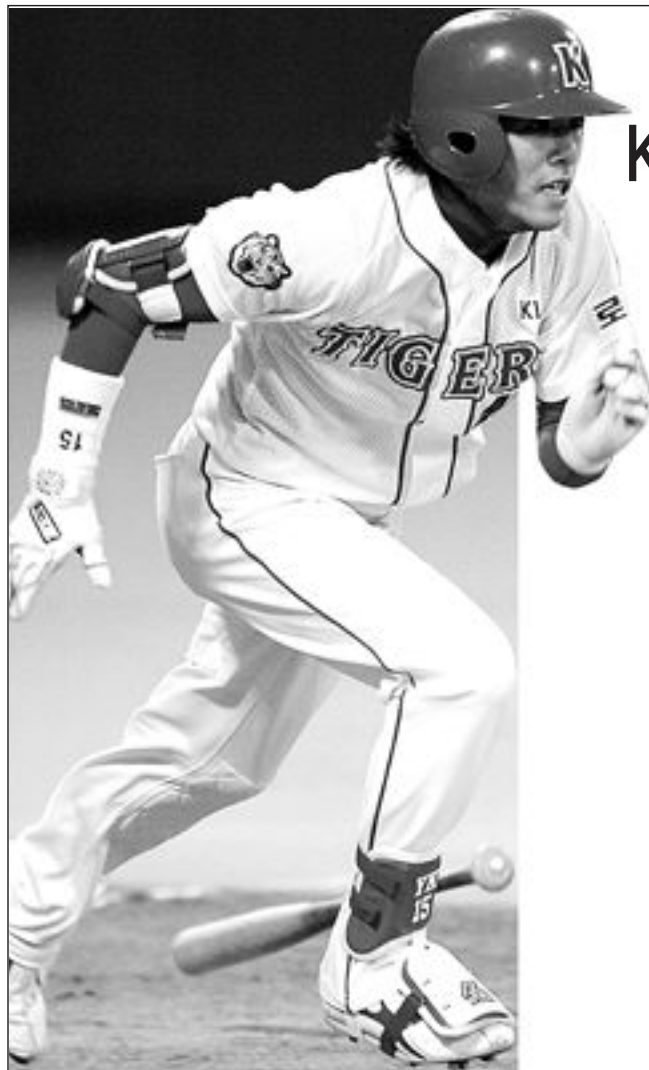
올스네스 기자는 “노르웨이와 스위스는 두 팀 다 체력이 좋고 단단한 축구를 한다. 하지만 전략적인 면에서는 한국이 낫다고 본다”면서 “우선 프리킥과 코너킥 등 세트 플레이를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스위스가 선제골을 넣으면 수 밖에 없다면 반대로 한국이 선제골을 뽑으면 스위스가 공세로 나오다가 수비수들 사이의 틈새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스위스 수비수들이 체격적으로는 우위에 있지만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에 틈을 노리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내다 보기도 했다.

“독일 베토벤 동상에 日 유니폼 입힌다”

일본 닛칸 스포츠 보도

독일의 대표적인 음악가 베토벤이 일본 축구대표팀 유니폼을 입고 2006 독일 월드컵에서 일본을 응원한다. 일본 닛칸 스포츠는 1일 인터넷 판에서 “일본 훈련캠프가 차려진 독일 본의 시내 중심가에 있는 베토벤 동상에 일본 축구대표팀의 ‘사무라이 블루’ 유니폼을 입히는 계획이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일본축구협회 관계자의 말을 빌려 “호주와 1차전 직전에 유니폼을

입도록 준비 중”이라고 전하며 “본 시당국도 ‘재미있는 아이디어’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본 시당국은 대회 기간에 시내 광장에서 대형 화면을 통한 야의 관전을 실시할 계획이어서 이 광장 한가운데 서있는 베토벤 동상에 일본 유니폼이 입혀질 경우 독특한 볼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닛칸 스포츠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서 “베토벤 동상의 키가 250cm로 일본 축구협회의 관계자는 ‘딱 맞는 유니폼이 있겠느냐. 너무 작아서’는 불만이 없지 않겠느냐고 걱정했다”고 전했다.



KIA 이용규 “을 시즌 나의 해”

타율 0.368·안타 57개 ‘선두’
도루 8개 4위...호타준족 입증

을 시즌 KIA의 ‘1번타자’를 꿰찬 이용규(21)가 연일 때시운 방망이를 돌리며 ‘볼타자’의 계보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야구사를 새롭게 써내려가고 있는 선배 양준혁(삼성·37)의 최후속도, 이택근(현대·26)의 불방이소도 이용규의 질주 앞에서는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다. 지난달 31일 현재 이용규는 최근 5경기에서 20타수 9안타(0.450)를 기록하며 타율 0.368로 타격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안타부문도 57개로 선두다. 이용규는 100m를 11초대에 주파하는 빠른발을 앞세워 도루 부문에서도 4위(8개)에 올라있다. ‘호타준족’이란 말이 저절로 나오는 대목이다. 을 시즌 초반 4할타를 때려내더니 이후 투수들의 견제 투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3할대 중반을 넘나들고 있다. KIA 서정환 감독도 이용규를 볼타자 자리에 올릴 정도

로 높은 신뢰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화와의 시즌 개막전에 9번타자로 출전했던 이용규는 이후 타순이 2번으로 상승했고 지난달 9일 SK전부터는 선배 이종범을 밀어내고 불방이 1번타자로 자리를 잡았다. 1980년대 이순철(현 LG 감독)에 이어 94년부터 지난 해까지 이종범이 지켜왔던 KIA 볼타자의 계보를 이을 후계자의 자리에 오른 것이다. 이용규의 활약 비결은 끈질긴 승부근성을 바탕으로 한 짧고 컴팩트한 야구다. 체격(172cm 70kg)에 비해 다소 스윙이 컸던 이용규는 을 스프링캠프를 통해 짧고 컴팩트하게 스윙을 바꿨다. 방망이를 짧게 쥐고 스윙폭을 줄이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타석에서 끝까지 불을 오래 보기 위해 타격 포인트도 최대한 뒤로 두는 연습을 했다. 을 시즌 ‘타자 10걸’ 중 유일하게 홈런이 없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용규는 “프로 선수로서 지는 것을 가장 싫어한다. 그냥 이기고 싶어서 열심히 한다. 그래서 승부처에서는 집중력이 더욱 높아진다”며 강한 승부 근성을 나타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사라포바 ‘화끈한 서브’

1일 파리에서 열린 프랑스오픈테니스 대회 여자단식 2라운드에서 러시아의 마리아 사라포바가 체코의 이베타 베네소바에게 서브를 넣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신세계, 신한銀에 역전패
이마트배 여자프로농구

광주신세계가 막판 4초를 남겨놓고 신한은행에 1점차로 역전패했다. 신세계는 1일 광주구동체육관에서 열린 안산 신한은행과의 신세계 이마트배 2006 여자프로농구 3차전에서 최다 득점을 기록한 ‘용병’ 미셸 캄벨(30득점, 2리바운드)의 맹활약에도 불구하고 64-65(15-15, 18-20, 17-16, 14-14)로 아쉽게 패했다.



Table with match results and scores for various sports events.

Real estate advertisements for various agencies including 금천공인중개사, 첨단월계공인중개사, 금부부동산건설팀, '팜'부동산서비스, 정원공인중개사, 금호공인중개사, and 에셋코리아 부동산건설팀. Each ad includes contact info and property details.